

도, 가고시마공항 전북 직원 추천

도내 대학에 의뢰 다음달 19일까지 모집... 4명 후보자 가고시마현에 송부 1명 채용 예정

일본 가고시마현이 1990년부터 전북 출신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공항빌딩이 전북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도와 일본 가고시마현은 우호결연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1990년 가고시마공항의 한국노선이 개설되면서 가고시마공항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도 국제협력과는 일본어 관련 학과가 있는 도내 5개 대학에 의뢰해 채용조건에 맞는 학생(졸업예정자 포함)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하고 1차 서류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가고시마현에 추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엔 4명의 후보자를 선발해 가고시마현에 송부하고 가고시마현은 오는 10월 현지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1명을 선발한다.



“육군부사관 화이팅” 육군부사관학교가 부사관들의 시기 진작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7회 충용대상 시상식을 지난달 29일 갖고 류성식 부사관학교장과 정희성 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등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양 지역의 보다 폭넓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 간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더 많은 국제교류 모범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가고시마현은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명의 전북 인재를 채용해오고 있다. /고민형 기자

을지연습 이달 22~25일까지 국무총리 주재 준비보고회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열었다.

을지연습은 이달 22~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실질적으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운영, 접경지역 주민 대피훈련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전력·에너지·금융분야 사이버테러와 GPS 전파 교란에 대비 훈련도 확대한다.

이밖에 생물무기와 감염병 대응훈련, 접경지역 주민이동 훈련, 포격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읍면동장 주관 화재대피요령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또 외부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성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재훈련을 실시한다. /박용주 기자

성범죄자용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 계획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마련 불량식품 원 아웃제 확대

정부가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가 하나로 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장과 읍·면·동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하게 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환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12월

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물대카메라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가정폭력 근절 대책으로 건강보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8월까지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확대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9월까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절한 보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인 ‘Wee 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 기관별 역할 및 활동을 명확하게 정하고 협업 필요사항 등도 규정해 학

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을 하반기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한 경우 1차례만 적발해도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유독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11월까지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 시장 재진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8월부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000개소)에 대해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들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조난자 수색시스템 구축한다

실종자 구조 시간 단축... 올해 경남소방본부 시범운영

국민안전처는 119구조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난자 수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조난자 수색시스템 구축은 산악 및 위험지역에서 고립된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고 구조현장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경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GIS와 LBS 등 정보통신(CT) 기술을 기존 운영 중인 소방정보시스템과 융합해 전국 산악지역 등을 격자 단위로 설정, 체계적인 수색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수색의 기반이 되는 GIS는 국가 지점번호 100km, 10km, 1km, 100m 격자와 새로 구축하는 200m, 40m, 20m, 10m 격자를 활용해 정확한 구조·수색이 가능해진다.

또 상황 관제는 구조대원 휴대폰의 위치 값을 수신 받아 상황실과 현장지휘관이 수색 경로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신속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색 중 자기 위치와 지나는 수색 경로 및 계속 등 위험지역을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대원용 모바일 앱도 개발한다. /박용주 기자

EN코리아, 화장품 한류 선도

‘바이오토르셀, 탄소응용필름’ 글로벌 브랜드 대상 선정

(주)엔코리아(대표 최정환)의 ‘바이오토르셀, 탄소응용필름’이 ‘2016년 제3회 글로벌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달 31일 제3회 ‘2016 글로벌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국제브랜드연합회(IBF), 국제언론인연합회(GJF), (사)대한경호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6 글로벌 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품질에 대한 신뢰를 쌓는 차리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분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수상한다.

제조부분 대상으로 선정된 (주)엔코리아는 2013년 탄소전문기업으로 창업한 3년차 창업초기기업으로 201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미래패키징 부문 코리아스타상, 아시아포장연맹의 아시아스타상, 세계포장협회의 월드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는 “글로벌 브랜드 제조부분 선정에 계기로 친환경 탄소응용제품들이 더 많이 생산돼 화장품 시장의 한류와 창업기업을 선도해 나갈 혁신기업 모델로 전북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전기요금 폭탄 문제 해소”

가정용 누진제 6단계→4단계

국민의당은 29일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

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의당의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효율적 전력사용을 위한 수요관리시스템 도입해 활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추진 ▲전력시장 정보 공개 제도화 위한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